



멋과 품위를 존중하는

신응배(申應培) 박사 -1-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1. 지난, 10월 10일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에서 ‘환경기술인의 날’ 행사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개최했다.

그 자리에 필자는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심사위원으로 심사발표를 하기 위해서 참석했고, 신응배 박사는 ‘환경기술인의 날’을 격려(격려사)하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신 박사는 그 자리에 현재 신 박사가 회장으로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 사무국장과 구계용 수석연구원을 대동했다.

또한, 환경단체의 행사에 그것도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열린 행사에 까지 직원을 참석시킨 것은 조금은 파격적인 일로도 보이겠지만,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온 필자로서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토록 신 박사는 매사의 움직임에 정확을 기한다. 말하자면, 환경문제에 임함에 있어, 그것이 연구 논문이건, 간단한 격려사이건, 관례의 참석이건 간에 자로 잰 듯 앞뒤를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신 박사의 글엔 ‘칼럼’ 類의 글이 별로 없다. 연구논문도 다양하게 정리하지 않는다. 한 논문을 계속 다듬어 완벽을 기한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와 같이 행사나 모임에 직원을 대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의 행사를 현장에서 보고, 배우도록 배려한다.

보통의 정성과 치밀함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그런 치밀함과 정확이 오늘의 신 박사를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신 박사의 직원, 후배, 제자 대하기는 신 박사의 정년퇴임 행사에서 당시 환경부 광결호 차관이 제자들의 합창 자리에 스스로없이 동참하여 축가를 부르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잊지 못해, 신 박사나 광결호 차관(당시)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생기면, 그 감동적인 장면을 곧잘 이야기 한다. 아무리 스승이라고 해도, 차관의 신분으로 그것도 나이 어린 다른 제자들의 틈에 끼어, ‘스승의 은혜’를 합창한다는 것은 광결호 차관의 인간됨이 훌륭해서이고, 신응배 박사의 사람 키우는 능력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이번 인천에서 다시 보고, 생각한 바가 많았다.

2. 신응배 박사는 이미 국내에서 석사학위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효시적 확률 강우강도공식을 만드는 등의 공을 세운 토목공학자로서 40여 년 간, 환경 분야에서 줄곧 후학지도와



2006년 10월 10일 인천 리미다 송도호텔에서 박창근 고문과 함께 '제 18회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시상하는 신웅배 박사(우)

연구에 매진하여 온 학자이다.

미국유학 후 70년 초에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국내유치 계획으로 미국유학에서 유치 귀국한 초기 토목기술자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재직 16년간 환경 분야에 창조적 연구수행으로 국내 환경보전과 환경 분야 학문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 후 대학에서의 후학지도와 연구를 지속하면서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수질 개선기획단' 민간위원, 정부의 환경관련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한토목학회' 부회장,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국제적으로는 '태평양 유해폐기물 학회' 회장, 'ASEM/AEETC'의 PPGG 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위선양 등의 공적 및 국제학회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1982), 대한토목학회 학술상(1982), 푸른환경대상(1988), UN 환경상(Global 500, 1992), 국민훈장 동백장(1997), 교보환경문화상 연구부문 최우수상(2001)을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국가수질관리에 하수관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하수관거 종합정비정책을 국책사업화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마침내 정부에서 "국가하수관거정비 특별원년(2002)"을 대통령

께 보고 천명하도록 하는 정책입안에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신 박사의 '하수관거 종합정비의 국책수립에의 공헌'은 -하수도 시스템과 하수처리장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종합적 수질관리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인식하고 하수관거의 중요성을 간과한 하수처리장 중심의 물량위주 건설과 부실한 하수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70년대 최초로 제기한 것이고, -하수관거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던 시기에 국내 하수관거 문제를 공론화하고 선진국 사례와 검증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요성 부각에 노력하였으며 대안마련을 유도한 것이다.

-그리고 하수관거 관련 국책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여서 국내 부실 하수관거문제의 심각성을 표면화시켜, 궁극적으로 정부가 하수관거를 국책 사업화하도록 유도하면서 '2002년을 하수관거 정비 특별원년'으로 제정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차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예산 총 3조 37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하수관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은 환경사에 기리 남을 신박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